

이병헌, 2019년 닫고 2020년 연다

지난달 '백두산' 이어 오는 22일 '남산의 부장들' 개봉
 '장르 불문·국적 불문' 모든 작품 탁월한 연기력 소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력의 소유자 이병헌이 '백두산'에서 폭발적인 흥행 파워를 선보이는 중이다. '백두산'에 이어 이병헌의 또 다른 주연작인 '남산의 부장들'이 흥행 바통 터치를 예고한다. '백두산'으로 연말연시 극장가 흥행을 이끌고 있는 이병헌. 그는 오는 22일 설 연

휴의 시작과 함께 '남산의 부장들'로 또 한 번 관객몰이에 나선다. '백두산'으로 2019년을 닫고 '남산의 부장들'로 2020년을 여는 이병헌의 활약이 또 한 번 주목된다. 이병헌은 믿고 보는 연기력으로 만장일치 연기 극찬을 얻어 온 배우다. '백두산'

에서는 데뷔 이래 처음으로 북한 요원 캐릭터 '리준평' 역을 맡아 북한 사투리부터 중국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 연기는 물론 총기를 활용한 액션까지 완벽하게 선보였다. 특히 이병헌은 속내를 알 수 없는 연기에 코믹한 에드리브까지 소화하며 관객들의 호평을 하드캐리한 캐릭터로 주목 받았다.

최근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흥행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백두산'이 이병헌 특유의 자유분방하면서도 천재적인 연기를 만날 수 있는 작품이었다면, '남산의 부장들'은 그의 정제되고 응축된 내면 연기를 만날 수 있는 영화다. 이병헌은 한림보다 위에 있는 권력의 2인자이자, 언제나 박동의 결을 지녔으나 결국엔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암살사건의 주인공이 된 중앙정보부장 김규평 역을 맡았다.

이병헌은 '남산의 부장들'에서 지금까지 그려왔던 어떤 인물들과도 다른 느낌의 캐릭터로 관객들을 묘하게 끌어당길 전망이다. 장르 불문, 국적 불문, 모든 작품에서 탁월한 연기력으로 대중을 매료 시켰던 배우 이병헌의 새로운 캐릭터에 관객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다.

한편 '남산의 부장들'은 1979년, 제2의 권력자라 불리던 중앙정보부장(이병헌)이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사건을 벌이기 전 40일 간의 이야기를 그린다. 52만부 이상 판매된 동명의 노픽션 베스트셀러 원작, 배우들의 폭발적인 연기, 우민호 감독 및 웰메이드 프로덕션의 영화다.

뉴스1

'이태원 클라쓰' 포스터 공개

JTBC 새 금토 드라마...박서준·김다미vs유제명·권나라 '맞대결'

'이태원 클라쓰' 승부사들의 뜨거운 맞대결이 펼쳐진다.

9일 JTBC 새 금토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연출 김성윤, 극본 조광진) 측은 이태원 신생 포차 '단밤'의 박서준, 김다미와 요식업계 몬스터 '장가'의 유제명, 권나라의 대립 구도가 흥미로운 4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동명의 다음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이태원 클라쓰'는 불합리한 세상 속, 고집과 개기로 뚫힌 청춘들의 '합' 한 반란을 그린 작품이다. 세계를 압축해 놓은 듯한 이태원의 작은 거리에서 각자의 가치관으로 자유를 쫓는 그들의 창업 신화가 다이나믹하게 펼쳐진다. '구르미 그린 달빛', '연애의 발견' 등을 통해 감각적인 연출력을 인정받은 김성윤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원작자 조광진 작가가 직접 대본 집필을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웹툰을 뚫고 나온 듯한 퍼펙트 싱크로율부터 개성 넘치는 원작 캐릭터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연기력까지 폭발적인 클래스 다른 배우들의 활약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공개된 4인 포스터는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뜨겁게 달군다. 박서준과 유제명을 중심으로 서로에게 등을 지고 선 '단밤'과 '장가'의 대치가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낸다. 이태원에 도전장을 내민 '단밤'의 박새로이(박서준



분), 청춘의 패기로 불타는 뜨거운 눈빛은 그가 펼칠 새로운 꿈의 도전을 기대케 한다. '고지능' 소시오패스이자 76만 팔로워를 보유한 SNS 스타 조이서(김다미 분)의 자유분방함 속에 감춰진 다부진 표정도 예사롭지 않다. '단밤'의 매니저로 임성한 천재 조력자의 활약이 궁금해진다. 열정 충만한 청춘들의 미래만큼이나 청량한 하늘에 더해진 "소신에 대가가 없는 삶은 살 겁니다"라는 문구에는 소신 하나로 이태원 접수에 나선 '직진 청년' 박새로이의 꺾이지 않을 강단과 배짱이 전해진다.

박새로이의 목표가 된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큰손 '장가'를 이끄는 장대희(유제명 분) 회장의 한기 서린 눈빛은 그 자체로 그가 살아온 세월을 짐작케 한다. 박새로이와의 지독한 악연으로부터 시작된 '단밤'의 반격에 과연 그는 어떻게 맞설지, '자비리스' 권위주의자

신동엽·유인나·김희철 '국제연애' 다룬다

JTBC 새 예능프로그램 '77억의 사랑' 3MC 확정



JTBC 신규 예능프로그램 '77억의 사랑'에서 전 세계 청춘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77억의 사랑'에는 개그맨 신동엽과 배우 유인나, 가수 김희철이 MC로 출연

오는 2월 10일 처음 방송되는 '77억의 사랑'은 전 세계 인구 77억 명을 대표하는 각국 청춘남녀가 연애와 결혼 등에 대한 견해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20,30 세대의 국제 연애와 결혼관 그리고 이성에 대한 실제 고민이나 사례를 통해 나라마다 다른 생각과 문화의 공감대를 나눌 기회를 갖는다.

해 세계 각국의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MC 신동엽과 연애 상담하고 싶은 배우 유인나, 독특한 개성으로 무장한 가수 김희철이 국제연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세 명의 MC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각국 대표로 출연 할 예정이다.

'77억의 사랑'은 '라디오스타' '우리 결혼했어요' '이방인' 등을 연출한 황교진CP가 기획하고 '오늘의 운세'의 강미소PD가 연출을 맡는다.

한편 9일부터 '77억의 사랑'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국제연애 중인 커플들의 고민 시연을 받는다. 언어차이와 문화차이 등 국제연애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이들에게 각국의 연애 코치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솔직한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연에 채택된 당첨자들에게는 77만원 상당의 고민 위로 상품권을 선물한다.

'집사부일체' PD "新 멤버 신성록 열정·적극적"

배우 신성록이 SBS '집사부일체'에 전격 합류한다.

오는 12일 방송되는 SBS '집사부일체'에 새 멤버 신성록이 처음으로 출연한다.

신성록은 지난해 9월 '집사부일체'에 일일 제자로 참여, 이승기, 이상윤, 육성재, 양세형과 활짝 호흡을 보여준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반전 매력으로 큰 웃음을 선사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신성록의 합류 소식은 더욱 기대감을 높인다.

본 방송에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서 신성록은 카리스마 넘치는 작품 속 모습과는 달리 단발머리에 빈개맨 분장을 한 채 등장해 시작부터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진 장면에서 그는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다가 하면 몸을 사리지 않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멤버들은 "열정 과다. 예능에 아주 최적화됐다" "성록이 형이 오니까 시너지 효과가 장난이 아니다"라며 덩달아 신난 모습을 보였다. '집사부일체' 연출을 맡은 이세영 PD는



"(신성록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다. 멤버들도 좋아하고 있고 텐션도 높아졌다. 덕분에 촬영 현장 분위기도 한층 더 밝아졌다"라며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신성록씨의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다.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밝혔다.

MEGABOX 광주첨단점

- 1관 천문·하늘에 묻는다
- 2관 백두산
- 3관 시동
- 4관 백두산
- 5관 미드웨이
- 6관 시동
- 7관 백두산
- 8관 천문·하늘에 묻는다, 캣츠
- 9관 백두산, 캣츠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 1관 시동
- 2관 미드웨이
- 3관 천문·하늘에 묻는다
- 4관 백두산
- 5관 신비아파트 극장판, 미드웨이, 눈의 여왕, 프린스 코기
- 6관 겨울왕국2, 백두산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